

지역 소식통

김제,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B그룹 최우수(2위)로 선정되어 사업비 1,6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는 세수규모에 따라 A그룹(1,500억원 이상), B그룹(600억원 이상), C그룹(600억원 미만)으로 나뉘며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세 징수를, 특별징수기간 목표달성도 등 8개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선정 결과는 국내의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다수의 납세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시는 그동안 자주채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 반기별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채권·예금 추심 등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노력해 왔다. /김제=곽노태 기자

치매 공공후견 대상자 모집

도내 최초로 '치매노인 공공후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김제시(시장 정성주) 치매안심센터가 공공후견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공공후견인이 치매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경제적·법적 권리를 보호해 줄 가족이 없는 치매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치매공공후견인은 전문교육을 수료 후 법원의 후견심판청구 과정을 거쳐 후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치매환자 가운데 가족이나 돌봐 줄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이다. 가족이나 친척이 있더라도 확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김제시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치매공공후견사업 관련 문의는 김제시 치매안심센터(063-540-4399)로 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지난 15일 갑진년을 맞아 9개 산업농공단지 기업인 협의회 운영에 노고가 많은 관계자를 격려하고 관내 기업 발전을 위해 한해 동안 열심히 근로한 모범근로자들을 표창하는 신년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김제, 기업인과 신년 첫 간담회

관내 9개 산업농공단지협의회 애로사항 청취 모범근로자 표창 등 기업인 목소리 귀기울여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산업농공단지 기업인들과 첫 소통의 장을 열었다.

김제시는 지난 15일 갑진년을 맞아 9개 산업농공단지 기업인 협의회 운영에 노고가 많은 관계자를 격려하고 관내 기업 발전을 위해 한해 동안 열심히 근로한 모범근로자들을 표창하는 신년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성주 김제시장, 경제복지국장, 투자유치과장 등 시 관계자와 관내 산업·농공단지 협의회장 9명, 모범근로자 표창 수상자와 모범근로자 기업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업인들에게 지난 2023년 사업성과와 2024년 기업 지원 시책을 소개했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시에서 추진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수출기업 성장 지원사업, △특장차 산업 육성을 통한 신산업 생태계 구축, △노후화된 산업농공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혁신사업 추진 등의 성과에 대해 공유했으며 2024년 갑진년 더 나은 성장을 이루기

위한 기업인 간 결의를 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대중 지평선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장은 "기업은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든든한 버팀목이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김제시 산업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업인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관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 공모사업 선정

소규모 영세농가에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인력 제공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형 계절근로와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형)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비 1억8,000만원과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형) 운영비 9,000만원을 확보해 국내·외 농촌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결혼 이민자 4촌 이내 가족초청으로 운영하며 기존의 농가 직접고용과 공공형 계절근로를 병행, 진행하게 된다. 농가

계약을 체결해 일일 단위로 계절근로자를 필요 농가에 공급하게 된다.

또한 3월부터 동경제농협에서 운영하게 될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형)은 내국인 근로인력을 모집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알선·중개할 예정이며 지난 2023년에는 767농가에 1만3,905명의 내국인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여 농가의 효율도가 높았다.

정성주 시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선정으로 농번기 안정적인 단기 인력 공급과 소규모 영세농가에 부족한 일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적인 농경경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유기동물 발생 줄인다

실외사육견 증성화·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동물 인수제 시행

완주군이 실외사육견 증성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한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실외사육견 증성화수술 지원사업은 마당 등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 이상 반려견의 증성화 및 동물등록 지원을 통해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한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하며, 압착 4~5만 원, 수컷 2~3만 원의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2월경 신청 접수 예정으로 사육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완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사용한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농업축산과(290-3248)에 신청할 수 있다.

보호 중인 유기동물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입양문의 또한 농업축산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지난해 4월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동물 인수제를 시행하고 있

다. 반려동물 사육 중 불가피하게 사육이 불가능해진 경우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인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게 돼 동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없게 되며, 인수된 동물은 인도적 처치가 가능해진다. 인수 후 인수신청자에게 보호비용의 청구도 가능하다.

인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시설 파괴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등이다. 위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가족 등 대체 사육자가 있거나 사육 불가능 근거가 빈약한 경우 인수 신청이 거부된다.

인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 사유 증빙서류를 갖춰 농업축산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검토 후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통해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완주군 농업축산과(290-3220, 3248)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청년 연령 18~45세로 확대

완주군이 청년 연령을 기존 18~39세에서 18~45세로 상향 조정했다.

16일 완주군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타 지자체 청년 연령 상향 추세를 반영하고, 청년 지원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완주 청년기본조례'를 의원발의로 일부 개정해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완주군 청년인구는 2023년 12월 기준 2만1,265명(전체 인구 대비 21.7%)에서 2만9,226명으로 7,961명이 늘어나게 된다.

완주군은 청년 연령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구직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거점공간 운영 활성화 △청년 정책협의체(청년정책이장단) 운영 등 각종 청년 사업의 지원도 연령을 상향한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자가 확대되고, 청년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2024년 무료 세무상담실 운영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나선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5일 제5기 마을세무사(2024년~2025년)에 최경열 세무사 등 4명을 위촉하고,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2024년 새해 첫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영세사업자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제 및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 마을세무사는 지난 2016년부터 권역별 읍면동을 월 1회 순회하며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2월부터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월 2회로 확대, 매일 첫째·셋째주 월요일 오후 3~4시 시청 종합민원실 내에 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서비스는 국제, 지방세, 지방세 불복 청구(청구액 300만원 미만) 등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법인, 보유재산 5억원이상, 종합소득(매출액) 5,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상담대상 제외다. /김제=곽노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